



독서, 개인 및 국가경쟁력

이 미 경
국회의원

I. 왜 새삼 독서가 강조되고 있는가?

독서에 관련된 일련의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새삼 독서가 강조되고 있다. 매스컴(KBS, MBC, EBS)에서는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고, 각 언론사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IT분야로 몰던 기사를 매주 주말마다 '이제 다시 책이다.'란 식의 'Books'라는 섹션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또한 독서관련 단체들이 속출하고 있고 최근엔 검색포털사이트(<http://www.naver.com>)에서도 독서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독서란 문자가 발명이 된 이후부터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삼 독서가 강조되고 있을까?

이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의 개인적인 환경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독서의 장애요인이 많다. 예를 들어 TV 및 각종 유선방송 등 영상매체 시청과 컴퓨터를 통한 오락, 채팅 등 사이버 문화 만연, 또한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우리의 아동·청소년들이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반해 지식정보사회는 물론 다가올 미래의 문화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활용과 창출이 없이는 개인 및 국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독서는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됨으로 새삼 독서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II. 선진 외국의 독서진흥 활동

1990년대부터 세계 선진국들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각종 독서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영국은 일찍이 '잠들기 전 책 읽어주기(Bedtime Reading)'가 가장 활성화 되어있는 나라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영국 아이들의 90%가 매일 베드타임 스토리를 들으면서 잠들고 있다고 한다.

또한 1992년부터는 '북스타트(Book-Start)'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가 출생한 후 처음으로 보건소에 등록하는 날 형제로 된 아기책 2권과 독서교육 부모가이드 북을 무료로 증정하고 계속적으로 책을 보급하는 운동으로 이 운동에 참여한 지역의 아동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아동의 학습능력 차이가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 결과를 놓고 영국 정부는 아동 학습능력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북스타트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00년에는 The 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를 구성하여 도서관·박물관·기록보존소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프로추구 관람객보다 더 많은 도서관 이용자 강국을 건설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미국인의 독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 뒤로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독서 바람을 일으킨 사람이 클린턴 대통령 부인 힐러리 여사이다. 그녀는 독서운동 전문가 회의를 역사상 최초로 백악관에서 열었으며 '자녀를 무릎에 앉고 책 읽어 주기 운동 (Reading On the Knee)'를 대대적으로 펼쳤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시절에는 유아 독서교육을 강화했고, 1998년에 'Reading Excellence Act'를 제정하고 의회도서관이 연간 7억 달러 이상의 서적을 구입 하는 것을 비롯 각 주정부 역시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 예산 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또한 성인 문해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OCOB(One City One Book) 운동을 시애틀 공공도서관에서 처음 시작한 이래 2004년 5월 미국 내 48개 주의 239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2002-2007년 전략 계획을 발표하여 'No Child Left Behind'법을 통과시켜 초·중·고등학생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독서교육 운동에 힘쓰고 있으며, 로라부시재단(Laura Bush Foundation)을 통해 '학교도서관 백악관 컨퍼런스' 개최, 전국 도서축제(National Book Festival) 개최 등 독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은 1998년 초·중·고등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2000년에는 『어린이 독서의 해』를 지정한 이후 꾸준히 다양한 책 읽기 프로그램을 기획·실시하였고 이듬해 2001년에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안'을 제정하여 독서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수업 전 '아침 10분 독서'운동을 시행하여 6천여 초·중·고등학교에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젊은 층들의 활자 이탈을 막기 위해 2005년 7월 '문자·활자문화진흥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스라엘은 의무교육 13년 동안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가장 먼저 도서관에 가서 그날 읽을 책을 빌려서 그날 중으로 책을 읽고 요약문을 써서 도서관 사서에게 제출하면 사서는 매년 그 학생의 독서리스트와 요약문을 통째로 내어 앞으로 읽을 책을 안내해 주고 있다. 이렇게 13년 동안 독서를 하고 나면 아이들은 누구나 유능한 독서능력을 갖게 되며 인구 10만명당 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명예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독일은 멀티미디어시대에 있어 청소년들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독서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이 독서재단은 "유년기를 활기 있게"라는 슬로건으로 각종 독서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책의 세계를 열어 주기위해서 멀티미디어(영화)와 손잡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

프랑스는 독서교육이 공교육의 주요 자격고사인 '바칼로레아'에 연결되어 있다. 이 자격고사는 40여권의 고전문학, 철학서, 사상서를 읽고, 요약하고, 비평하는 것으로 꾸며진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책을 읽지 않고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게 하고 있다.

Ⅲ. 국내의 독서진흥 활동

우리나라도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독서력이 저하됨에 따라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교육계에서는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을 비롯한 국립중앙도서관 및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각종 독서진흥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독서운동도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독서진흥 관련 제도적 장치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법안들이 2005년부터 발의되어 2006년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이어 「독서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다.

독서문화진흥법은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독서의 본질을 왜곡한 채 독서관련 정책이나 활동들이 수행되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도록 한 독서이력철, 서울시교육청의 교과별 독서지도매뉴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독서교육지원시스템, 대전광역시교육청 독서능력평가원의 독서인증시험, 전국독서새물결모임의 독서능력검정시험 등은 '독서 결과에 관한 평가'를 위한 것으로 결국 대입 위주의 줄 세우기식 교육 풍토 속에서 강요되고 획일화된 독서교육 방식이 수행되어지고 있다. 이는 독서의 사교육화를 조장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독서습관을 들이는 최적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서 독서의 즐거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책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독서활동은 개인적인 활동이지만 아동·청소년에게 있어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개인의 몫이라기보다는 사회의 몫이라 할 수 있다.

독서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를 구하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다가올 문화사회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길러주는데 있어 절대적인 가치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금 세계 각국은 21세기 국가 비전의 성패가 창의력 있고 감수성을 지닌 국민 개개인에게 있다고 보고 독서교육 및 독서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 구현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데는 독서의 본질(즐거움, 자율성, 무상성)에 근거한 올바른 독서문화 환경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